‘한국 영화 대전’ 최후 승자는?

‘밀수’·‘비공식작전’·‘더문’·‘콘크리트 유토피아’ 개봉 잇따라
제작비 최대 280억…400만~640만명 넘어야 손익분기점
장르·배경 등 개성 뚜렷…역대급 폭염·높은 티켓값 등 변수

올여름 극장가가 한국 영화 대전으로 서서히 달아오르고 있다.

지난 26일 영화 ‘밀수’가 가장 먼저 포문을 열고 관객몰이에 나선 데 이어 ‘더 문’, ‘비공식작전’, ‘콘크리트 유토피아’ 등이 차례로 개봉 채비를 하고 있다.

올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된 가운데 4대 배급사와 극장들은 여름 휴가철과 폭염 특수를 기대하며 손익분기점 돌파를 위해 총력을 쏟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부분 편당 제작비가 200억원을 훌쩍 넘는 대작들인 데다 1~2주 간격으로 개봉하는 점을 고려하면 4편 모두 ‘남는 장사’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여름에도 치열한 경쟁 끝에 두 편만 손익분기점을 넘겼다.

대작 4편 중 첫 테이프를 끊은 것은 류승완 감독의 신작 ‘밀수’(배급사 NEW)다.

이 영화는 제작비 175억원이 투입됐다. 극장 관객 수 기준으로 손익분기점은 대략 400만 명으로 알려졌다.

‘밀수’는 지난 26일 개봉과 함께 톰 크루즈 주연의 할리우드 액션 블록버스터 ‘미션 임파서블: 데드 레코닝 파트 원’을 제치고 박스오피스 1위에 올라 흥행을 예고했다. 이번 주말 1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 바닷가 마을 해녀들의 밀수 범죄를 소재로 김혜수, 염정아, 조인성, 박정민, 고민시, 김종수가 주연한 이 영화는 유머와 긴장감을 채운 탄탄한 이야기에 시원한 느낌의 수중 액션이 강점이다.

다음 달 2일 개봉하는 김성훈 감독의 신작 ‘비공식작전’(쇼박스)은 이국적인 풍광으로 가득하다.

1980년대 실제 사건을 토대로 중동 지역에서 무장단체에 납치된 외교관 구출 작전을 그린 이 영화는 모로코와 이탈리아 등 외국 현지 촬영분이 70%에 달한다.

제작비도 200억원을 훌쩍 넘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지만, 배급사 측은 일부 정산 등이 확정되지 않아 아직 제작비를 수치로 내놓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손익분기점도 명확하지 않다. 다만 최소한 600만명을 넘기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정우와 주지훈 주연의 버디 액션 영화인 ‘비공식작전’은 빠르고 강도 높은 액션이 강점이다. 특히 자동차 추격 장면은 완성도가 상당히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과 함께’ 시리즈에서 궁합을 과시한 하정우와 주지훈은 이 영화에서도 ‘티키타카’로 웃음을 자아내고, 모험 속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 감동을 준다.

‘비공식작전’과 같은 날 개봉하는 김용화 감독의 ‘더 문’(CJ ENM)은 관객을 우주로 데려간다.

우주를 배경으로 한 공상과학(SF) 영화인 ‘더 문’은 제작비가 280억원에 달한다. 시각특수효과(VFX)에만 61억원이 투입됐다. 손익분기점도 그만큼 높아 640만명 수준으로 추산된다.

설경구, 도경수, 김희애 주연의 이 영화는 달 착륙에 성공한 한국의 우주인이 재난을 당하고 고립돼 나로우주센터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전에 나서는 이야기다.

우주 스펙터클의 사실성이 할리우드 영화에 못지않아 한국 SF 영화의 새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작 4편 중 마지막으로 출격하는 영화는 다음 달 9일 개봉하는 엄태화 감독의 신작 ‘콘크리트 유토피아’(롯데엔터테인먼트)다.

대규모 재난을 그린 이 영화에는 220억원의 제작비가 투입됐다. 손익분기점은 대략 400만 명 수준으로 알려졌다.

이병헌, 박서준, 박보영 주연의 ‘콘크리트 유토피아’는 대지진으로 서울이 폐허가 되고 유일하게 남은 황궁 아파트에 생존자들이 모여들면서 벌어지는 일을 그렸다. 김승늉 작가의 웹툰 ‘유쾌한 왕따’ 2부 ‘유쾌한 이웃’을 원작으로 했다.

이병헌은 지난달 21일 제작보고회에서 이 영화가 재난 영화라기보다는 “재난이 벌어진 이후 사람들이 어떻게 버티고, 소통하고, 이겨내려고 하는지를 담은 휴먼 블랙 코미디”라고 말해 이번엔 어떤 연기를 선보일지 기대감을 불러일으켰다.

배우들의 연기뿐 아니라 극한 상황에 몰린 사람들이 빚어내는 이야기와 대규모 재난을 사실적으로 그려낸 컴퓨터그래픽(CG)도 강점이라고 제작진은 자부한다.

/연합뉴스

‘핑크퐁 아기상어의’ 힘

K-캐릭터 첫 스포티파이 10억 스트리밍 돌파

더핑크퐁컴퍼니는 ‘핑크퐁 아기상어’ 등 소속 캐릭터 음원이 세계 최대 음원 스트리밍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누적 스트리밍 10억건을 돌파했다고 최근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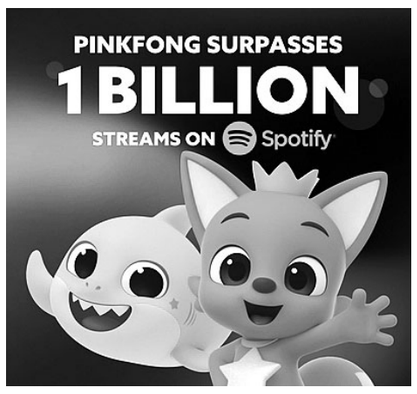
이는 가수(아티스트)를 제외한 국내 애니메이션·캐릭터 업계로는 최초의 기록이다.

더핑크퐁컴퍼니는 지난 2017년 이래 핑크퐁과 아기상어 등 인기 IP(지식재산권)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아동용 노래를 공개해왔다. 핑크퐁 스포티파이 아티스트 계정의 월 청취자는 430만명에 이른다. 또 ‘핑크퐁 아기상어’(Baby Shark)는 단일곡으로 스포티파이 스트리밍 5억8000만건을 기록했다. 이 노래는 전 세계 유튜브 조회 수 1위를 기록한 ‘핑크퐁 아기상어 체조’ 영상의 음원이다.

‘핑크퐁 아기상어’는 이 같은 인기에 힘입어 지난 2019년 1월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 32위를 기록하고, 20주 연속 진입한 바 있다.

또 지난해 11월 영국 오피셜 차트가 출범 7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톱 200 최다 스트리밍’ 차트에서 스트리밍 2억건으로 8위에 오르기도 했다. 김민석 더핑크퐁컴퍼니 대표는 “미국 빌보드 ‘핫 100’ 집계에 반영되는 글로벌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국내 콘텐츠 업계(가수 제외) 최초이자 유일하게 누적 스트리밍 10억건을 달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전 세계 청취자가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곡을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연기·노래 둘 다 놓치지 않을거에요”

드라마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 김명수

아이돌 그룹 ‘인피니트’ 출신
고졸 출신 회계사 역할로 열연
완전체 활동 앞둬…다음달 콘서트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카페. “안녕하십니까!”라는 우렁찬 인사로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킨 김명수(31·사진)가 걸어들어왔다.

김명수는 지난 29일 종영한 MBC 드라마 ‘넘버스: 빌딩숲의 감시자들’(이하 ‘넘버스’)에서 고졸 출신 회계사 장호우 역을 맡았다.

장호우는 뛰어난 기억력과 관찰력, 탁월한 임기응변 능력에 싹싹함과 유머 감각까지 갖춘 캐릭터다. 아버지처럼 모시던 어른의 죽음을 복수하기 위해 회계사가 됐고, 내부 직원으로서 태일회계법인의 부조리에 맞서 정의를 실현해 나간다.

복수를 위해 입사한 태일회계법인에서 장호우는 딜파트의 부대표 한제균(최민수 분)과 자주 맞붙는다.

김명수는 ‘대선배’인 최민수의 기에 밀리지 않으려고 애썼다고 한다.

그는 “실제로도 최민수 선배님은 너무 대단하신 대선배시고, 극 중에서도 선배님은 부대표, 저는 신입이었다”며 “분위기에 압도당할 것 같은 순간들이 종종 있었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런 순간마다 장호우를 단단하게 만드는 원동력인 복수심을 되새겼다”고 말했다.

“최민수 선배님과 힘의 차이를 못 이기고 밀리는 것 같다고 느끼면 다시 해보겠다고 양해를 구했어요. 독기 품은 장호우가 한 제균에게 쉽게 지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최민수 선배님도 제가 다시 하겠다고 할 때마다 좋아해 주셨죠. 매번 흔쾌히 맞춰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회계법인을 배경으로 하는 이 드라마에는 SM(10년 차 전후 부장급 회계사), 필드(회계법인이 업무 의뢰를 받은 회사), 의견거절(감사 자료가 불충분하여 제대로 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에 내는 감사 의견) 등 온갖 전문용어가 등장한다.

김명수는 “대사량 자체가 많기도 했고, 회계 용어가 가득한 대사를 어색하지 않게 연기하는 게 너무 어려웠다”며 “정말 많이 준비하고, 연습하고, 맞춰보는 과정을 거듭했다”고 강조했다.

최근 새 기획사 ‘인피니트 컴퍼니’를 설립하고 완전체 활동을 준비 중인 인피니트는 다음 달 19~20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돔(체조경기장)에서 단독 콘서트 ‘컴백 어게인’(COMEBACK AGAIN)을 연다. 인피니트의 완전체 팀 콘서트는 2016년 이래 7년 만이다.

김명수는 “인터뷰 끝나면 이제 콘서트 연습을 하러 가야 한다”며 “30대에 접어드니 체력이 예전과 같지 않아 죽겠지만, 팬분들께서 기대하시는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준비 중”이라고 환한 웃음을 지었다.

이어 “기억해주시는 인피니트 특유의 스타일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트렌디함을 몇 스푼 첨가했다”고 귀띔했다.

/연합뉴스